

GP Indonesia 김 화 수 선교사

Jl. Sariwangi Asri X, No. 8, Kompleks Sariwangi Asri, Kel.Sariwangi, Kec.Parongpong Bandung Barat, Indonesia

//Tel: +62-22-8202-5858//hp)62-812-2194676//E-Mail: estherhsk@gmail.com

살롱 ~

“기쁘고 복된 성탄 맞으세요 ~” 지금부터 약 3주전에 이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어느 선교사님이 전해온 메시지였습니다. 아니 벌써???라는 생각과 함께 좀 황당하다는 마음까지 들었지만 올해는 이곳 현지인 친구들보다 먼저 이 어두움이 창궐하는 세상에 유일한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인사를 하고 싶었다는 말씀을 들으며 수궁이 되었고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상황을 헤아리며 머물러 있을 만큼 여유부리지 못하고 냉정하리만큼 야속하게 어김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마주하며 정신이 번쩍 들기도 했습니다. 12월초부터 곳곳에서 성탄 행사가 시작되는 이곳 인도네시아에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을 초월하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그리움과 사랑을 전하면서 오랜만에 이곳 소식과 저의 기도제목을 보내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

6월초부터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인도네시아가 10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신기하리만큼 확진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매일 6만여명 정도가 확진되었는데 현재는 통계상 500여명 미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거리엔 예전에 비해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2년여간 코로나바이러스가 활취고 지나간 상처를 이곳 저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상점마다 문을 닫은 곳이 많았고, 렌트라고 쓰여진 건물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겪었을 아픔과 삶의 무게가 전해져 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나라의 지도자로서 나름대로 팬데믹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대처하고 정리해 나가는 대통령을 보면서 고맙고 부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속히 코로나바이러스가 소멸되고 특별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으로 부터 보호해주시길 또한 모든 팬데믹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집 ~

은혜의 집 아이들은 아직도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마다 재량껏 교대로 학교에 가서 대면수업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올해 말까지는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학교측과 상의하여 계속 집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4명의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또한 2명의 아이들이 지난 9월과 10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는데 모든 상황이 쉽지 않은 가운데서 새롭고 낯선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함으로 승리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공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직하고 잘 훈련된 아이들을 떠나 보내며 기쁨과 보람도 누리지만 어릴 때부터 약 20여년을 저의 삶의 현장에 함께 했는데 이제 이 험한 세상을 마주하며 홀로 서야 하는 아이들을 보내면서 느끼는 이 허전함과 상실감, 안타까움 같은 미묘한 감정들은 무엇일까 생각해봅니다. 아무쪼록 삶의 터전에서 인생의 목적을 잃지 않고 더 굳건히 훈련 되어 앞으로 은혜의 집을 이어갈 귀한 일군으로 성장되어 돌아오길 바라며 그 아이들의 삶 속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하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반동 필하moni 오케스트라 멤버들이 은혜의 집 아이들 온라인 콘서트를 열어 주었습니다. 집에만 갇혀 지내는 지루하고 지친 일상을 벗어나 잠시지만 음악으로 마음에 위로와 시원함을 더해주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멋진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감사 드립니다.

매일 밤 들려지는 찬양과 예배, 그리고 말씀 암송과 묵상, 중보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의 집 식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어 고난중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큰 특권과 영광입니다.

새로운 순다족 남자아이 2명이 은혜의 집 식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회교 배경을 가진 아이들인데 다른 순다 사역자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소개했고 또 은혜의 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에 두 눈을 살짝이 치켜 뜨고 훑쳐보며 자기들끼리

키득거리지만 곧 주님께 사로잡힌 멋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길 소망하며 새로운 식구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진행되는 약2년동안 매일 24시간을 30여명의 아이들과 작은 공간에서 함께 어우러져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만은 확실한 듯하네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슬픔과 기쁨,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한 식구로 살아감이 기쁨이면서도 늘 바람 잘 날 없는 삶에 분주하고 지친 시간들이 뒤섞여 찾아옵니다. 그럴 때면... 고귀하신 우리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떠올리며 황송한 마음에 감사를 가득 채우고 주님의 만져주심과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 하루를 그분께 맡긴 채로 나아갑니다.

은혜유치원 ~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실하고 충성된 유치원 선생님들이 원생들과 종일반 아이들을 위해 매일 수고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소수의 아이들이지만 그 중에 자폐증세를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며 많이 좋아지고 있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2년동안 팬데믹으로 새로운 원생들을 모집하지 않고 운영했는데 코비트 19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며 내년 새학기에는 원생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며칠 전부터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으나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현지인 교회와 협력사업 ~

반동에서 약2시간 가량 떨어진 가룟이라는 도시에 순다족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이삭부부가 있습니다. 가룟도시 주변을 비롯해 해변마을을 돌며 미전도 종족인 순다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사역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어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외롭게 영적 싸움을 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 서로 격려하고 힘을 보태면서 함께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삶과 사역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도응답이라며 함께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거주 비자 ~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현지 거주비자를 받지 못해 사역지에 입국을 못하고 한국에 머물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고국에 방문하여 혼자 계시는 어머니도 뵈고 잠시 휴식을 가지고 싶었지만 여러 환경과 이유로 인해 한국에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1년짜리 거주비자를 5년 거주 비자로 전환하는 수속을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비자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 여러모로 훈련된 우리 은혜의 집 대학생이던 리베가 예전처럼 서류 수속을 맡아 진행했답니다. 코로나로 관공서가 문을 닫거나 교대 근무를 하는 날들이 많아 수속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때마다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어 지난 11월초에 5년 거주 비자를 잘 받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이민국에 공식적으로 납부하는 비자비용 외에 추가로 든 비용 없이 비자가 나온 것이 참 감사하고 모든 수속 과정가운데 함께 해주신 주님께 그리고 기도로 지원해 주신 여러 동역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더 많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는 삶으로 ~

이곳에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한창 폭발적으로 증가할 6월과 7월에 우리 은혜의 집 아이들 몇 명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콘서트를 하기 위해 아이들이 악기 연주하는 것을 녹음하러 방문한 3명의 형제들 중 누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무증상인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과 가까이 접촉하며 전이가 된 것입니다. 작은 공간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에 며칠이 안되어 아이들 모두가 돌아가며 기침 또는 발열증세로 며칠씩 아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고 크게 염려하지 않았는데 결국엔 아프지 않던 몇 명의 아이들과 저까지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하더군요. 그 후에 아이들이 후각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그때서야 감기가 아니고 covid19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일단 빠른 검사를 했는데 양성반응이 나왔고 그래서 곧장 PCR 검사를 하였지요. 역시 양성으로 나와 은혜의 집 식구들 모두가 소위 말하는 집단 감염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픈 것도 쉽지 않았는데 어린 아이들까지 감염이 되어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지만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을 각자 방에서 자가격리 하도록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후각과 미각을 잃은 것 외에 무증상으로 지내는 아이들도 있었고 하루 또는 3~4일씩 아프고 열이 난후 점차로 회복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무증상인 아이들과 대학 졸업 논문을 쓰기 위해 잠시 자취를 하고 있던 리베가 오가며 우리들을 섬겨 주었습니다. 아무 약도 처방하지 않았는데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 아이들에게 자연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당뇨증상이 있어 결국 늦지 않게 항생제와 비타민을 복용했고 주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으로 바이러스가 폐로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에 시간은 걸렸지만 이렇게 치유되어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의 길을 감사함과 황송함으로 걷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병원에는 코비트 환자들로 가득 차고, 약국에서는 약이 떨어져 필요한 약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 매일 수만명의 확진자와 천여명이 넘는 사망자가 쏟아져 나오고... 가까운 곳에 한인

선교사님들과 한인들도 코로나에 감염되어 신음하고 고생하다 에어 엠블런스로 한국으로 후송되는 분도 계셨고... 이곳에서 회복되는 분도 계시고...또는 소천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정말 아수라장 같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험이 끝나기 전에 또 다시 찾아오는 시험과 시련들을 맞으며 그냥 무사통과 해도 좋으려만 반갑지 않은 손님처럼 꼭 이렇게 찾아와서 힘들게 하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시험을 통과하며 아침 안개처럼 쉬 사라지는 덧없는 인생이 매 순간마다 얼마나 연약한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늘 아버지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며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단순한 마음으로 누리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시 또 다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자신의 귀한 뜻을 이 세상에 펼쳐가시고 영광 받으시는 멋지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망하며 하늘 아버지께 전심으로 구하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 직접 역사하시어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한 한사람을 찾으시고 사용하시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 저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남은 생애 저도 더 많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돌리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모든 사역과 저의 인생 길에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걸어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 땅에 나그네 되어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12월 5일 인도네시아에서 김화수 선교사 드림.

감 사 :

1. 5년짜리 거주 비자를 순조롭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것 감사
2. 은혜의 집 아이들과 저를 covid19의 위험과 감염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
3. 지난10월 2명의 은혜의 집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게 된 것 감사.
(한명은 취직을 하였고 다른 한명은 현재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모든 성장과정에 개입해주시고 주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의 날들도 한걸음씩 인도해 주시어 늘 승리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

1. 생명이신 주님께 나아와 그분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고 새롭게 경험하며 모든 막힌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2.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임하여 모든 면에서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흥케 되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위험에서 저와 은혜의 집 아이들, 그리고 은혜 유치원의 원생들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켜주시도록, covid19로 인해 모든 학교 일정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지만, 유치원 원생들을 더 보내주시도록,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 교재와 자료를 창의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실력 있고 충성된 교사가 보충되도록.
4. 은혜의 집 아이들이 주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삶과 신앙인격이 성숙해지며 어떤 환경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사춘기시절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강한 손과 팔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 말씀과 은혜 안에 굳건히 서도록.
 - 은혜의 집에 새로 들어온 회교배경의2명의 아이가 잘 적응하고 그들에게 알맞은 기독교 학교를 잘 선정하여 교육받을 기회가 주어지도록. 은혜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회를 통하여 진정한 회개와 예수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아이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성령을 부어주시어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사회생활과 직장에 잘 적응하도록.

- 아이들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 모든 일에 진보를 나타내도록.
- 모든 아이들이 성실히 공부하고 주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어 좋은 열매가 있도록.
- 아이들이 열심히 악기연주를 배워 진보를 이루고 귀하게 쓰임 받도록.
- 은혜의 집을 위해 충성되고 신실한 소명 있는 사역자를 보내주시도록.
-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기간 동안 성경암송을 매일 1~2구절씩 하고 있는데, 그 암송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마음 판에 새겨지도록(기쁨으로 암송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5. 은혜의 집 땅구입 과정에 발생한 민사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땅주인이 항소를 했고 그 항소심이 진행되어 이제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정직하고 공의로운 판단과 판결을 하도록,
주께서 불의한 사람들의 거짓과 탐욕을 파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진리가 승리하도록,
재판을 통해 주님 뜻만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6. 순다족 사역자와 성도들이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부분적 지역 폐쇄 등 팬더믹 여파로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에 허덕이며 도움을 요청해 오는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필요한 협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채워주신 것들을 포함해 생필품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잘 나눌 수 있도록...

7. 팬데믹 상황에서 아이들이 1월부터는 대면수업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길. 특별히 컨디션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별도로 자가격리 및 생활 할 수 있는 공간과 혹시 은혜의 집에 손님이 방문해도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는 좀 넉넉한 공간의 장소가 긴급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길을 여시어 일단 이러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건축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진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 영육간 회복과 강건함을 위해...

영적으로,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도록.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도록.

육적으로, 당뇨증상 및 몸의 여러 연약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도록.

9. 혼자 계시는 95세의 연로하신 어머니가 늘 강건하심 가운데 기쁨과 감사 및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생을 보내시도록.